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역동경제 교역창업

7.18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7(월) 오전 11시부터 보도가능)

배포일시	2017. 7. 17. (월)	담당부서	수출입과
담당과장	이원희 과장(044-203-4840)	담 당 자	김대영 사무관(044-203-4041)

산업-통상간 연계 강화를 통해 수출회복세 지속 도모

- 산업부,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 개최 -
- 7월 및 3분기 수출은 증가세 지속 전망 -
- 기제기 68건 애로사항 중 59건 조치 중, 11건 신규 애로 발굴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7.17.(월) 17: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**를 열고 **7월과 3분기 수출동향 점검**과, **산업-통상간 연계 강화방안,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**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**11개 주요 업종 협단체***와 코트라·무역보험공사 등 **수출지원기관**이 참석해, 특히 **산업과 통상간 긴밀할 연계를 통한 수출회복세 지속 방안**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.

* 반도체협회, 자동차협회, 자동차협동조합, 조선협회, 전자정보통신진흥회, 철강협회, 석유화학협회, 석유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섬유산업연합회, 디스플레이협회

□ **이인호 차관**은 "**최근 우리 수출**은 **8개월 연속 증가**하고 **6월에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**하는 등 **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며, 7월 및 3분기 수출**도 **증가세가 유지**될 전망이나,

○ **최근 유가 상승세 둔화, 국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위험(하방리스크)이 확대**되고 있어 **향후 수출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.**"라고 말했다.

○ 이에 따라 "정부는 국제 **보호무역주의 강화**를 극복하고, **최근의 견고한 수출 회복세를 유지**하기 위해 **무역·산업·통상분야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**"이라고 강조했다.

- 우선, "아세안(ASEAN)·**인도 등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**하고, **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늘려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**해 나갈 것이다."라고 말하면서,

- "**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조**"하고, "**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2대 신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.**"라고 말했다.

-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"**미·중 등 주요국와의 통상현안 대응,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, 자유무역협정(FTA) 연계망(네트워크)를 활용한 수출 지원** 등에 **통상역량을 집중할 것이다."라고 강조했다.**

○ 또한, "**그간의 수출점검회의를 통해 제기된 애로 중 통상 관련 애로가 40% 이상으로 최대 유형을 차지**하는 등, **최근의 수출회복세를 유지**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**산업과 통상간의 연계 강화**를 통해 **통상 관련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**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."라고 말했다.

- **업종별 협단체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 발굴**하고, **통상부서는 협상 등에서 이를 적극 반영**하여,

- **산업과 통상이 긴밀히 연계해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** 당부하였다.

□ **7월 및 3분기 수출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·단체는 주요 주력품목이 세계 교역 회복 지속, 단가 상승 등**으로 **증가세를 지속**할 것으로 전망했다.

○ 특히, **반도체·선박·석유제품·철강 등이** 3분기 **두 자리** 수 **증가율**을 **기록하며 총수출 증가를 견인**할 것으로 기대했다.

* 반도체(메모리 가격 안정 및 수요 강세 지속), 선박(고가 해양플랜트 통관), 석유제품·철강(단가 상승)

○ 올해 **7월 수출 증가**시 '11.12월 이후 **5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**하게 되고, **분기 수출**로도 '14.4분기 이후 **2년 3분기 만에 4분기 연속 수출이 증가**하게 된다.

□ 이어서 그간 제기된 **총 68건의 애로사항** 관련 추진경과를 논의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는 **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**하였으며, **39건의 애로는 애로사항을 수용**하고 **현재 조치 중에 있다**고 밝혔다.

○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**단기 수출보험**의 **부보(Cover) 가능 바이어수 확대**(20→30개), 중국내 현지직원 고용 변경시 **외부 전문가 컨설팅 지원** 및 **지역별 노무 전문가 설명회 신규 개최** 등이 있었다.

○ **원산지 증명서상 선적일자와 실제 선적일자**가 **5일 이상 차이가 없을 경우** 수입국에서 **해당 증명서를 인정**하도록 요청, **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**(CO-PASS) **적용국가 확대** 요청 등 **총 11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·제기**되었다. 신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**향후 수출점검회의에서 애로사항 해결 추진경과를 업종 협단체와 공유**할 예정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김대영 사무관(☎044-203-40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